

# 한중 FTA 체결 등으로 국내 위안화 유동성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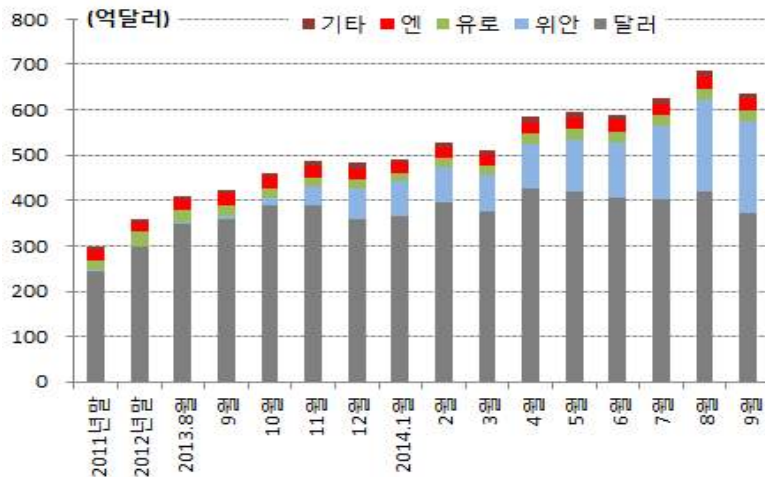
이정진(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작성일: 2014년 11월 21일

## ■ 최근 국내 위안화 예금 동향 및 급증 배경

- 국내 위안화 예금 잔액은 작년부터 급증 추세이며, 전체 외화예금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
  - 한국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현황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 진출 외국기업) 위안화 예금 잔액은 203.5억 달러로 나타남
  - 이는 전체 외화예금 중 32.0%에 해당하며, 위안화 예금 잔액이 전체 외화 예금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림 1]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통화별 잔액 추이



[표 1] 2014년 국내 위안화 예금 잔액 및 비중(단위: 억달러, %)

시기	'14.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금액	75.6	762.	78.9	99.1	113.3	119.7	161.9	199.7	203.5	217.0
비중	15.4	14.5	15.4	17.0	19.0	20.3	25.9	29.1	32.0	32.7

자료: 한국은행

- 한국의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해 국내 예금자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시하는 위안화 예금을 선호
- 현재 중국은행(BOC) 서울지점은 5만 위안(약 850만원) 이상 예치 시 연 3.2%의 금리를 제공
  - 한국 내 중국계 은행들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등 중국 내 특정 지역 은행에 예치, 홍콩 등 역외시장 운용, 무역금융 대출 등을 통해 국내 은행들에 비해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여

예금을 유치

- 국내 거주자가 중국계 은행 지점에서 위안화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는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를 직접 예치하거나, 원화를 당일 송금환율을 적용해 위안화로 환전 후 예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 은행에서 송금환율로 환전할 경우 환전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중국계 은행지점에서도 국내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 특히 작년 말부터 국내 증권사와 중국계 은행 지점이 위안화 예금을 기반으로 한 ABCP 발행을 확대함에 따라 국내 위안화 예금 급증에 일조
- 2014년 상반기 정기예금 유동화 실적을 통화별로 살펴보면, 위안화 정기예금이 총 5.2조원, 달러화 정기예금 4.4조원, 원화 정기예금 5.7조원으로 나타남

[표 2] 2014년 상반기 국내 통화별 정기예금 유동화 현황(단위: 억 원)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총계
위안화	3,966	-	8,560	12,258	16,155	10,678	51,617
원화	6,678	15,374	3,084	16,972	10,320	4,168	56,596
달러화	2,569	7,483	9,309	8,432	8,557	8,076	44,426

자료: NICE 신용정보

## ■ 국내 위안화 유동성 증가의 영향

- 국내 저금리 환경하에서 고수익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에 투자 기회를 늘리고, 국내 위안화 유동성 확대에 따른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로서의 위상 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
- 대만은 2013년 초부터 청산은행 지정, RQFII 인가 등 위안화 영업 환경이 조성된 이후 위안화 예금이 빠르게 증가
- 한국과 유사하게 높은 중국 의존도, 저금리 환경에 처해 있는 대만은 FTA와 위안화 허브, 대만 기업의 중국 진출 가속화 등으로 위안화 허브와 실물 경제의 시너지 효과가 점차 가시화
- 반면, 위안화 예금 ABCP에 내재된 리스크 및 외화건전성 저해 우려 등 부정적인 영향도 병존
- 위안화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는 중국계 은행의 위안화 예금 원금 지급 불능 가능성 등 기초자산 신용위험, 정기예금과 ABCP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위험 및 위안화 환율 변동 위험 등이 내재
- 또한 시중 중국 은행이 예치한 위안화 예금의 대부분을 본지점 차입의 형태로 중국으로 송금하면서 외화 유출이 발생하여 외화건전성을 저해할 것을 우려
- 홍콩은 2010년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홍콩 내 위안화 표시 자산 급증 등 위안화 역외허브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홍콩달러와 위안화의 페그 가능성 및 홍콩달러의 거래 통화로서의 지위상실 우려까지 대두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홍콩은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 및 다양한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등으로 글로벌 제1의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통화 대체나 환율제도 변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 향후 국내 위안화 유동성 증가 전망

- 금년 상반기부터 지난 8월까지의 국내 위안화 예금 급증은 한중간 금리차이와 환헤지 추가수익을 겨냥한 위안화 예금 ABCP 발행 급증에 기인하는 바가 컸음.
  - 일반적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원-위안을 헤지하면 선물환 디스카운트(수익률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 정상
  - 그러나 2013년 말부터 중국 내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달러-위안의 현물-선물 환율 갭(스왑레이트)이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위안 헤지 과정에서 디스카운트가 아닌 프리미엄이 발생
  - 최근 중국 내 달러 유동성 경색이 완화되며 환헤지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ABCP 상품 발행이 위축되었고 이와 함께 위안화 예금 증가율도 급격히 하락
  - 금년 9월 국내 위안화 예금잔액은 전월대비 1.9% 증가(7월:+35.3%, 8월: +23.3%)에 그침
- 향후에는 한중 FTA 체결 및 국내 위안화 역외허브 구축에 따라 대중 교역 기업의 위안화 무역결제 증가하면서 기업 위안화 예금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
  - 한국은 중국과 무역 규모가 크고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위안화 자산 축적에 유리한 환경이나, 아직 대중 교역 기업들의 달러화 거래에 익숙한 관행 및 보유 위안화 활용도 제약 등으로 위안화 무역결제는 매우 부진한 상황
  - 한·중 양국은 '14.11.4(화)~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 협상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
  -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
  - 금년 7월 한중정상회담 이후 국내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RQFII 투자 허용 등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조성
- 또한 역외금융센터를 보유한 다른 국가들도 금융 자산 중 외화표시 자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도 위안화 역외허브로의 발전에 따라 개인 금융 자산 중 위안화 등의 외화표시 자산 비중이 확대될 전망

## ※ 참고자료

-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4/11/10
- 정기에금 유동화의 현황 및 특징, NICE 신용정보, 2014/10/23
- Hong Kong: Developments of the Cnh market and its implications on the HKD peg, Goldman Sachs, 2010/10/28
- 香港金融管理局, HALF-YEARLY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REPORT, September 2010